

1. 油價급상승으로 시작된 '90년 석유시장

1990년대 국제석유시장의 첫거리는 油價급등으로 시작되었다.

지난해말 베럴당20.85달러로 거래 종료되었던 브렌트 유종이 계속 상승세를 보여 1월 2일 21.72달러, 3일 2

1990년대 석유시장 전망

2.78달러로까지 올랐다가, 1월 2주째 들어 다소 소강상태를 보여 21달러 수준에 정체하고 있다.

1월중순 현재 油價수준은 제86차 OPEC(석유수출국기구) 정기총회가 개최되기 직전인 11월말보다는 무려 2달러 인상된 수준이라는 점에서 연초 석유시장은 소비국들에게 커다란 긴장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같은 油價급등현상에 대해 석유시장 관계자들은 크게 두가지 해석으로 갈라지고 있다. 한 그룹은 최근의 油價상승이 일시적 현상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油價상승 원인을 주로 美國 시장의 여파로 돌리고 있다. 지난 12월부터 美國에 사상 유례없는 한파가 밀어닥쳤으며, 이에 따라 난방유 등 석유제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 일시적으로 유가폭등을 초래하게 됐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美國의 정유사들이 대부분 기후가 온난한 멕시코만 연안이나 중서부지방에 밀집해 있는데, 이들 지역에도 한파가 밀어닥침으로써 평소 한파대비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았던 이들 정유공장중 일부가 가동중지에 들어감으로써 심각한 공급장애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것이 美國 石油시장을 극심한 혼란에 빠뜨리게 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혼란과정에서 石油 트레이더들의 농간도 작용했으며, 이는 美國 동북부 수개주 정부에서 석유가격 조작에 대한 수사필요성을 제기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현재의 油價동향은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며, 급상승 요인만 제거되면 유가는 가까운 시일내에 큰 폭의 반등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다른 그룹, 즉 油價강세론자들의 주장은 전혀

宋 駿 英

(한국석유개발공사 조사 1 과장)

다르다. 단기적·우발적 요인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油價 상승 수준이 배럴당 21달러(Brent 기준)를 넘어서 1개월 이상 지속하고 있는 것은 일시적 현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전세계적인 수요증대현상은 이미 석유시장을 Buyer's Market에서 Seller's Market로 전환시켜 가고 있으며, OPEC 의존도의 증가, OPEC 산유량증가에 따른 생산 가동률 증가현상으로 보아 세계는 이미 고유가시대의 문턱에 서 있으며, 이제 그 징후들이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해 앞으로 2~3년내 '70년대대와 같은 고유가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향후 油價는 단기적 수급요인보다는 장기적 추세분석을 중심으로 전망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관측은 일부에서는 제3차 석유위기설로 이어져 석유가격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런데 이 두가지 관점은 반드시 서로 상충하고 있는 것 만은 아니다. 하나는 주로 단기적 관점에서의 분석이고, 다른 하나는 '90년대 전반을 내다보는 관점에서 油價 상승전망을 강조한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 석유시장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이 두가지 관점을 동시에 감안해야만 할 것이며, 이같은 분별력 있는 이해가 있어야만 보다 냉정하고 적응력있는 대응책 강구도 가능해지리라 본다. 따라서 본고는 현 석유 시장상황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단기적 전망으로서 1990년 한해를 보고 장기적 전망으로서는 1990년대를 보면서, 특히 앞으로 10년의 기간중에 제3의 석유위기가 도래하게 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기로 하겠다.

2. 단기적 전망-1990년 석유시장

〈'89년 石油시장의 특징〉

1989년중 국제油價는 대체로 배럴당 3달러 정도의 상승이 있었다. 당초 예상되던 상승폭을 2달러 가깝게 웃도는 강세라 할 수 있다. 1989년중 이 같이 油價가 큰폭으로 오른 이유는 첫째, 지속적인 수요의 증가, 둘째, 원유공급상의 잦은 사건·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요증가를 배경으로한 OPEC 내분의 수습 및 결속의 강화를 들 수 있다.

먼저 수요증가추세를 살펴보면, 1989년도 자유세계 石油수요는 51.9백만b/d로서 이는 전년대비 100만b/d

(1.96%)가 증가한 수치이다. 이 같은 수요증가는 '88년도의 3%를 넘는 증가세에 비하면 다소 둔화되는 경향을 보여, 증가물량면에서도 '88년의 160만b/d증대를 크게 밀돌고 있으나 石油수요가 연 4년째 100만 b/d 이상 증가해 왔다는 점은 '89년 油價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공급측면을 살펴보면 OPEC가 2,160만b/d, 非OPEC가 2,880만b/d를 공급하였는데, 非OPEC의 공급이 전년에 비해 40만b/d줄어든 반면에 OPEC의 공급은 170만b/d가 증가하였다.

이 OPEC의 공급의 증가가 OPEC쿼타의 증대현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非OPEC의 공급물량이 정체하고 있는데 비해 OPEC의 공급은 무려 170만b/d가 증대해 OPEC의 쿼타가 2,200만b/d를 넘어서게 됐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가 '90년 石油시장 전망에는 물론 '90년대 유가추이의 분석, 나아가 오일·쇼크 도래설과도 관계가 있는 부분이 된다.

'89년중 非OPEC의 공급이 줄어든 것은 알라스카 발데즈항구의 누유사고로 인한 알라스카 원유의 공급감소와 北海 브렌트 유전의 잇달은 조업사고에 따른 공급감소에 기인한다. 따라서 '89년 한해 동안 OPEC 의존도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고, 또 OPEC도 자신의 생산능력의 80%에 가까운 생산활동을 펴온 것도 사실이지만, 이것이 非OPEC 생산능력의 현저한 감퇴 때문만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며, 또 '89년중 수요증대가 전년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현격하게 이루어졌다는 착각은 바로 잦은 사건·사고에 의한 油價의 불안정 때문에 불안감이 증폭된 때문인 것이지 세계석유수요가 예상을 넘어서 증대됐기 때문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OPEC 행태면에서도 그러하다. 지난해 OPEC는 총회 또는 감시위원회를 소집할 때마다 이를 油價상승의 계기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OPEC가 실제로 유가상승을 이루어내는 어떤 결정을 취했던 적은 사실상 없다. 다만 非OPEC의 공급감소가 OPEC이 안고 있던 여러 난제들을 덮어주었으며, 이에 따라 OPEC는 외형적으로 합의 체제를 적절히 유지하면서 油價회복의 자신감을 피력하는 Rhetoric을 남발하는 것만으로도 油價상승의 계기를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1989년 국제석유시장은 잇달은 사건·사고가 非OPEC의 공급을 감소시키면서 이에 따라 수급체계가 혼란된 와중에서 油價는

수급수치가 잦은 의미를 넘어서 증폭 상승한 한해였다고 볼 수 있다.

〈1990년 石油시장 전망〉

1990년에는 세계경제성장률의 둔화를 반영하여 세계石油 수요도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이다. 자유세계 石油수요는 5,300만b/d 수준으로 전년대비 2% 안팎인 100~110만b/d가 늘어날 전망이다.

공급측면에서는 非OPEC의 공급이 2,950만b/d로 1989년보다 70만b/d 늘어날 전망이며, 순수한 對OPEC 원유수요는 2,160만b/d 수준으로 금년과 같은 수준이나, OPEC이 이를 넘어서 현 쿼타 2,200만b/d 또는 현 생산수준 2,350만b/d를 계속 생산하는 경우 100~200만b/d의 과잉공급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90년도 수급상황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반기중 2,100만b/d수준에 머무를 전망이어서 OPEC가 1/4분기중 산유량을 200만b/d 이상 감축하지 않는다면 최소한 배럴당 2달러 수준의 油價하락이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수급분석에 몇가지 불안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다.

첫째, 공산권의 변화, 특히 소련의 산유량 감소와 東유럽의 자유화에 따른 수요 증대현상이다. 과연 이것이 어느 시점에 얼마만한 크기로 나타날 것이냐는 점이 관심의 초점으로서, 상기한 수급분석에서는 공산권으로부터의 수출이 50만b/d 감소할 것을 전제한 것이다. 만약 그 폭이 크게 확대된다면 '90년 시장에 예상 밖의 충격

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변수는 北海원유의 순조로운 공급문제이다. 北海유전은 금년 하절기에 파이프라인 안전설비공사를 할 예정인데 이로 인한 조업 스케줄은 이미 공개되어 있으나 혹시라도 이 과정에서 예상 밖의 공급차질이 생긴다면 '89년과 마찬가지로 시장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우연변수에 가까운 불안요인이 있기는 하나 200만b/d에 가까운 과잉공급이 상반기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89년의 油價상승 추세가 '90년에도 계속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OPEC의 동태를 살펴볼때, '89년에는 OPEC의 증산분을 시장이 모두 흡수하여 줬으나, '90년에는 오히려 감산이 불가피한 실정이어서 감산과정에서 야기될 OPEC 내부의 쿼타준수의 공방은 오히려 OPEC의 결속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89년 상황과는 크게 다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세계石油수요규모의 현저한 증가를 감안할 때, 과잉공급물량이 갖는 의미가 과거와 같이 심각하게 해석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OPEC 생산가동률의 70%수준으로의 증대는 시장의 잠재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해 작은 사건·사고에도 油價에 민감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에서 비록 '90년에 油價상승세가 일시적 정체현상을 보인다 하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石油시장을 둘러싼 긴장감은 계속 고조돼 갈 것으로 예상된다.

3. 장기전망- 제3차 석유위기설의 실체

〈표-1〉 1989년 석유수급실적 및 1990년 전망

(단위: 백만b/d)

	1989					1990년 전망				
	1/4	2/4	3/4	4/4	연평균	1/4	2/4	3/4	4/4	연평균
수요	52.8	49.8	50.8	54.1	51.9	53.9	50.9	52.1	54.7	52.9
非OPEC 공급	28.6	28.4	28.7	29.5	28.8	29.4	29.2	29.1	29.5	29.3
OPEC NGL	1.9	1.9	1.9	1.9	1.9	1.9	1.9	1.9	1.9	1.9
한계수요	22.3	19.5	20.2	22.7	21.2	22.6	19.8	21.1	23.3	21.7
재고변동	△ 2.4	1.6	1.9	0.7	0.4	△ 1.8	1.5	1.0	△ 0.5	0
OPEC 공급	19.9	21.1	22.1	23.5	21.6	20.8	21.3	22.1	22.8	21.7

〈註〉 IEA 및 PEDCO 추정치

〈석유위기의 논거〉

석유가격의 장기적 동향은 기본적으로 石油소비와 공급의 함수관계이며, 주로 세계경제성장률의 추이, 他에너지와의 관계를 변수로 하여 움직인다. 타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석유가격의 장기전망은 계량경제적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석유시장이 갖는 특성 즉, 石油가 고갈성 자원이라는 점, 中東지역에 매장량의 70%가 집중돼 있어 이 지역의 정치적 변수 등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유가의 장기전망은 항상 한계가 있어 왔으며, 특히 두차례에 걸친 석유위기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쓰라린 경험을 안고 있다.

1980년대에 들어 石油시장이 Seller's Market으로부터 Buyer's Market으로 전환되고, 특히 '86년 가격전쟁 이후 석유시장도 타상품과 마찬가지로 시장질서가 점차로 강하게 나타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예측능력은 어느 정도 신장돼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흔히 石油시장을 장기적으로 분석하는데 있어서 7년 정도의 주기로 충격적변화가 찾아 왔다고 말하고 있다. 1973년 1차 석유위기, 1979년의 2차 석유위기, 1986년의 가격전쟁이 그것이다. 이 같은 현상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흔히 OPEC의 생산능력 대 생산가동률의 관계를 통해 풀이하고 있다. 즉, OPEC의 생산가동률(생산능력 대 생산량비율)이 80%를 넘어서게 되면 석유위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학문적 논거보다는 선험적인 것을 기초로 한 것으로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제3의 석유위기로 바로 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제3의 석유위기의 해부〉

1989년초까지만 해도 특별한 한두개 기관의 전망을

〈표 - 2〉 기관별 油價전망

(단위 : \$/B)

	1988	전 망		
		1992	1995	2000
CONOCO 社	14	15	20	24
美 에 너 지 部	14.7	15.9	20.6	28
HARVARD 大	18	30	40	50
日 本 에 너 지 經 濟 研 究 所		(케이스 I) 25	28	
		(케이스 II) 20	26	

제외하고는 대체로 '90년대 유가는 국제인플레이션을 반영하는 완만한 상승을 보여 연 배럴당1~2달러 폭의 상승을 거듭해 '90년대 중반에 배럴당25달러, 2000년에는 배럴당25~30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돼 왔다.

그러던 것이 최근 들어 '90년대 초반 배럴당25달러 달성, 또는 '92~'93년에 제3차 석유위기 발생 전망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전망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日本 미쯔이 연구소의 전망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단 미쯔이 연구소의 전망내용을 놓고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동 연구소의 논지는 단순하다. ① 선진국 석유소비절약의 한계 ② 개도국 및 공산권의 석유소비증대 ③ 원유소비증대에 따른 OPEC 생산가동률의 증가로 '93년에 제3차 오일·쇼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표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를 통하여 보듯이, 위기설은 형식논리상 완벽한 것이다. 연2%의 소비증가, OPEC 생산쿼타와 일치하는 OPEC의 원유생산 그리고 1993년 油價 34% 상승은 제3차 석유위기로 보아도 충분할 것이다. 그런데 데이터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 OPEC 생산능력에 대한 평가이다. 미쯔이 보고서는 '93년 OPEC 생산능력 3,000만b/d, OPEC산유량 2,470만b/d로 생산가동률이 82.2%에 달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타기관들의 예측에 의하면 OPEC는 이미 1990년에 3,000만b/d의 생산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어떤 데이터가 보다 신빙성 있는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또한 표에 나타난 OPEC 생산능력 데이터들이 200~300만b/d의 range로 표시된 수치의 중간값을 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석유개발사업의 진도에 따라 가동률 역시 5%이상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덮어놓고 이를 신뢰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이 논리는 석유개발사업의 진도와 함수관계를 갖게 된다. 최근 '89년의 油價상승추이에 힘입어 석유개발사업이 비교적 활기를 띄기 시작하였으며, '89. 11 제86차 OPEC총회에서는 각회원국의 생산능력에 따라 쿼타를 재배분하자는 주장이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산유국에 의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OPEC 국가들의 산유능력 신장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공산이 크다 하겠으며, 특히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등은 1~2년 내에 200~300만b/d의 생산능력증대가 가능한 여건이라는

〈표-3〉 제3차 석유위시설의 수급표

(단위 : 백만b/d, \$/B, %)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 2000
원유 수요	50.9	52.1	53.4	54.5	55.7	56.5	55.7	55.7	60.2
(전년 대비)	3.2	2.4	2.4	2.2	2.1	1.4	△ 1.3	△ 0.1	1.6
OPEC 원유 생산	19.7	21.2	22.0	23.0	24.0	24.7	23.8	23.7	27.2
OPEC 생산능력	27.5	27.5	28.0	29.0	30.0	30.0	32.0	32.5	35.0
OPEC가 동 불	71.8	77.1	78.4	79.5	79.9	82.2	74.5	72.8	77.8
原油 가격	14.79	17.22	18.00	19.50	22.00	29.50	29.50	29.00	34.00
(前年對比)	△18.5	16.4	4.5	8.4	12.8	34.1	0.0	△ 1.7	8.2

- 〈註〉 1. 원유수요는 자유세계 합계
 2. OPEC의 원유생산은 원유수요 - 非OPEC 원유생산
 3. 원유가격은 연도기준의 일본의 평균수입가격(CIF)
 4. [1996-2000]란의 수치는 2000년도의 예측치

〈표-4〉 기관별 OPEC 생산능력 평가

(단위 : 100만 b/d)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2000
미쓰이	27.5	27.5	28.0	29.0	30.0	30.0	32.0	32.5	35.0
美에너지部			30.5					32.8	33.7
동서센터	28.0		31.1					35.5	37.2
P I W		26.7	30.1						

점도 고려돼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93년 석유위기도래설은 아직은 단언하기는 어려운 하나의 가설로 이해돼야 할 것이다. 더욱이 지난 1, 2차 석유위기는 단순하게 생산가동률의 증가요인뿐만 아니라, OPEC 국가들의 정치적 동기가 크게 작용했던 것이고, 이에 비해 현재의 OPEC는 1, 2차 석유위기를 통해 급격한 油價의 상승이 반드시 자국에게 이익만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교훈을 얻은 바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제3차 석유위기는 온다소 과장된 주장이 아닌가 생각된다.

4. 맺는말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1990년 油價가 '89년의 상승세와는 달리 한풀 꺾일 것이라는 전망과 油價는 꾸준히 상승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은 모두 논리적 타당성을 갖고 있다.

1990년 油價약세론자도 또 제3차 석유위기 조기도래설

을 주장하는 위기론자도 모두 '90년대 어느 시점에서는 油價는 배럴당 25달러 수준을 넘어서게 돼 다시 고유가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에는 차이가 없다. 다만 이것이 쇼크의 형태로 올 것인지, 가시적 형태로 서서히 다가올 것인지의 차이만이 남을 뿐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어느 하나의 주장에 또 어떤 하나의 데이터 해석에 쉽게 기울어지면서 낙관과 비관을 교차하고 흥분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10년전에 高油價시대의 재도래를 예상하고 국가석유비축제도, 石油자주개발제도를 세워놓고 이를 추진하여 왔다. '90년대를 맞으면서 韓國의 오일맨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과연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소기의 목표들을 제대로 이루어 왔는지 또 지난 10년과 같은 자세로 '90년대를 살아갈 때 과연 '90년대 언젠가는 필히 나타날 高油價시대에서 우리는 후회하지 않을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뿐인 것이다. ♣